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 1 교시

언어 영역 정답과 풀이

[1~6] 듣기

1. 인물의 태도 파악 - 정답 ①

<출제 의도·유형 분석> 할머니와 손녀의 서로에 대한 행동을 이야기로 제시하고 이에 나타나는 두 인물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래서 정답> 할머니는 손녀인 영선이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챙겨가지 못한 도시락을 정성껏 마련하여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학교까지 찾아가지만 영선이가 없어 그냥 자리에 놓고 온다. 한편 영선이도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점심을 거를까 봐 할머니를 위하여 점심 시간을 이용해 집에 와서 할머니를 위한 밥상을 차려 놓는다. 가사 실습 시간에 만든 음식이니 자신은 걱정하지 말고 맛있게 먹으라는 쪽지를 보며 할머니는 손녀의 정성에 차마 수저를 들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염려하고 보살피며 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므로 ‘배려하는 모습’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② ‘공정’은 손녀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로서는 적절한 것이지만,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⑤ 서로 엇갈렸다는 ‘아쉬움’ 보다는 서로를 염려하는 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 정보의 이해와 그림에 적용하기 - 정답 ④

<출제 의도·유형 분석> 강의에서 설명한 내용을 듣고 특정 정보를 실제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이다.

<이래서 정답> 강의에서 설명한 가을 호수의 특징은 표층수의 온도가 섭씨 4도로 떨어지면 약한 바람에도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답지에서 물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은 ②, ④, ⑤인데 이 중에서 앞의 설명에 부합하는 것은 ④이다. 표층수의 온도가 4도로

하강하고 전도가 일어나는 모습이다.

<오답 피하기> ① 여름 호수의 모습이다.

② 봄에 표층수의 온도가 섭씨 4도로 상승하면 전도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③ 호수물의 전도가 일어나고 있고 있는 겨울 호수의 모습이다.

⑤ 겨울 호수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모습인데 강의의 내용에 의하면 겨울 호수에서는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3. 대화의 중심 화제 파악 - 정답 ④

<출제 의도·유형 분석> 두 학생의 대화 내용을 듣고 대화의 핵심 화제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래서 정답> 두 학생은 토론 주제를 찾아오라는 숙제를 하다가 ‘저무는 육필의 시대’라는 기사 검색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디지털 글쓰기’에 관해 대화를 나누게 된다. 즉 디지털 글쓰기가 빠르고 쉽게 글을 쓸 수 있고 고쳐 쓰기도 쉬워서 누구나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반면에, 옛날보다 진지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적어졌고 남의 글을 베끼기도 쉬워졌다는 단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들 대화의 중심 화제는 ‘디지털 글쓰기의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육필’은 화제로 제시했을 뿐이며 글의 중심 화제는 ‘디지털 글쓰기’이므로 부적절하다.

② 대화 내용이 세대간 정보화의 격차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③, ⑤ ‘디지털 글쓰기’가 중심 화제이지만 이의 장단점을 언급하고 있지, 이를 ‘정보화’나 ‘의사소통’과는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4. 강연 내용의 관점 파악 - 정답 ④

<출제 의도·유형 분석> 강연 내용을 듣고 핵심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

+++++

+++++

제 유형이다.

<이래서 정답> 강연은 만화 영화 ‘캐디’의 노랫말이 한국과 일본이 다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 노랫말은 전후 호황을 누리는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발랄한 여성의 위상이 반영되었다. 반면에 70년대 한국의 사회적 상황은 순종적인 여성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슬퍼도 울지 않고 참아내는 여성상이 노랫말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연의 핵심 내용은 한일 두 나라의 노랫말이 다른 이유를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일본 만화가 수입될 때 약간 변형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일본 노랫말이 한국어 노랫말에 영향을 주었다는 언급은 없다.

② 상업적 측면에서 노랫말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다.

③ 노랫말에 나타난 여성관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여성관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⑤ 한일 노랫말의 어느 한 쪽을 폄하하거나 비판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두 나라 노랫말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5. 발언의 핵심 파악 - 정답 ③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을 토대로 발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이다.

<이래서 정답> 인터뷰에서 작가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한 영웅의 개인적인 고뇌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 싶었으며,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맞아 의병장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인간적 고민을 들여다보고 싶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진행자도 “‘홍의장군 광재우’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을 그려보고 싶었다는 뜻”이라고 정리해 주고 있으므로, 시대 상황 속에서 고뇌하는 인간상을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 작가가 추구하는 바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인물의 영웅적 면모 형상화는 작가의 의도와 어긋난다.

② 역사적 사건의 철저한 고증은 역사 소설이라는 장르에도 부적절하며 인터뷰 내용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④ 인물의 개인적 욕망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규범의 재해석은 언급이 없으며 단지 인물의 개인적 고뇌가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상이다.

⑤ 인터뷰는 ‘광재우’라는 한 인물의 고뇌와 삶을 조망하고 있지 다양한 인간형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6. 대화 내용의 비판 - 정답 ②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인터뷰를 듣고 대화 당사자의 발언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래서 정답> 인터뷰의 진행자는 청취자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작가의 발언을 적절히 요약하고 있으며,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의 언급을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원작의 집필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진행자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진행자가 작가와 다른 관점에서 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7~14] 쓰기, 어법 · 어휘

7. 연상하기(비유적 소재로부터 유추하기) - 정답 ①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구체적으로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자료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연상의 과정에서 자료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 적절한 주제를 유추해 내야 한다.

<이래서 정답> <보기>의 자료에서, ‘물이 더러워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는 ‘깨끗한 환경의 필요성’을, ‘신호보다 먼저 출발하면 반칙입니다.’는 ‘부정을 없애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것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앓아 온 썩은 이를 뽑아 주세요.’는 ‘적절한 시기에 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메시지를 각각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자료를 통해 ‘바람직한 우리 사회’에 관한 공익 광고를 만든다면, 그에 적절한 광고 문구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사회를 위해서 부정부패를 척결

+++++

하자.’는 뜻을 담고 있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② ‘부정 출발’ 그림과 관련이 있으나 다른 자료의 메시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③, ④ <보기>의 세 자료와 관련이 없다.

⑤ ‘더러운 물’ 그림과 관련이 있으나 다른 자료의 메시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8. 개요의 적절한 수정 - 정답 ④

<출제 의도·유형 분석> 개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통일성, 일관성, 완결성 등 좋은 글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기준으로 주어진 개요의 내용과 흐름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이래서 정답> ‘Ⅱ-3-나-1) 대체 에너지 개발’은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위해서는 ‘Ⅱ-3-가. 에너지 자원 확보’로 옮겨서 하위 항목으로 삼아야 타당하다.

<오답 피하기> ① 주제문은 구체적일수록 바람직하다. 따라서 문제의 실상과 그 대책을 언급하면서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아낸 것은 적절하다.

② 서론에서 ‘고유가의 현실’을 제시하였으므로 본문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거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고유가 시대의 수출 전략’은 주제와 논의의 방향과 어울리지 않는다.

③ ‘에너지난 극복 대책’은 논지 전개상으로도 자연스럽고, 하위 항목도 포괄하고 있다.

④ 결론은 명료해야 하고 어떠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글이라면 그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

9. 주제와 세부 내용의 통일성 파악 - 정답 ④

<출제 의도·유형 분석> 세부 내용들과 주제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항목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의 세부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정확하고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래서 정답> 이 글은 정부와 체육계 관련 단체를 예상 독자로 하는 글이므로,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체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하기’, ‘규칙적인 운동 습관 갖기’와 같은 내용은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문제의 현상과 그에 대한 인식 부족을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다.

② <보기>의 주제에서 ‘정부와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있으므로, 예상 독자는 당연히 ‘정부의 관련 부처’와 ‘체육계 관련 인사’로 설정해야 한다.

③ ‘문제 제기’와 ‘대책 촉구’로 자연스럽게 논지의 전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④ ‘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관련된 자료로 적절하다.

10.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 정답 ③

<출제 의도·유형 분석> 제시된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조건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추리·상상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래서 정답> 첫문장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긍정한 후, 둘째 문장에서 반론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 문장에서 은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반대의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① <보기>에 나타난 ‘상대방의 의견’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②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④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⑤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비유적 표현도 활용하지 않았다.

11. 바뀐 쓰기의 적절성 판단 - 정답 ⑤

<출제 의도·유형 분석> 주어진 제시문의 이해를 넘어서 다양한 방향으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바뀐 쓰기를 할 때는 방향 전환의 의도를 명백히 설정하고, 의도에 충실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이래서 정답> 이 우화의 주제는 부드럽고 유연한 삶의 태도가 강하고 경직된 태도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제를 강조하겠다고 하면서 참나무의 강직한 삶의 방식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오히려 주제 의식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3인칭 서술 시점을 1인칭 서술 시

+++++

점으로 바꾸면 서술자 ‘나’의 태도가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

② 갈대의 속성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므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갈대의 유약한 속성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③ 우화는 결국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므로 사물 대신 인간을 주체로 설정하여 주제를 전달할 수도 있다.

④ 사건의 개요만 제시하는 실화적 서술을 구체적인 상황과 장면을 보완한 소설적 서술로 바꾸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12. 고쳐 쓰기 - 정답 ⑤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어법을 바르게 알고 문맥의 흐름에 자연스러운 표현을 구사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평소에 올바른 문장을 구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래서 정답> 앞 문장에서는 오해를 푸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뒤 문장에서는 원천적으로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할 때 ‘(앞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라는 의미의 접속사인 ‘물론’을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 피하기> ① ‘끼여들다’는 피동인 ‘끼이다’와 능동인 ‘들다’가 결합한 꼴이 되어 어법에 맞지 않는다.

② ‘틀림없이’는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과 호응하므로, 가능성의 범주인 ‘~ 수도 있다’와는 호응하지 않는다.

③ ‘밟다’는 자동사이므로, 목적어 뒤에는 타동사인 ‘미워하다’를 써야 한다.

④ ‘풀다’의 피동형은 ‘풀리다’와 ‘풀어지다’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둘을 겹쳐 쓰는 ‘풀려지다’는 이중 피동이 되어 어색하다.

13. 문장 구조의 이해 - 정답 ③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안긴 문장과 안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겹문장의 문법적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국어 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래서 정답> ㄱ의 밑줄 친 부분에서 서술어가 ‘흐르다’이므로 생략된 주어는 ‘땀’이다. ‘땀’은 전체 문장의 서술어인 ‘씻었다’의 주어가 된다.

<오답 피하기> ①, ② 밑줄 친 부분을 기준으로 볼 때 ㄱ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 ㄴ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 ㄷ은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④, ⑤ 우리말은 서술어를 기준으로 문장을 파악하므로, 서술어의 개수가 곧 문장의 개수이다. ㄴ은 ‘착하다, 모르다’가 서술어이므로 각각 안긴 문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말은 안긴 문장을 써서 복잡한 사고의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

14. 어휘의 쓰임과 활용 이해 - 정답 ⑤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평이한 어휘를 중심으로 그 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어휘의 사전적 의미는 물론이고 그 어휘가 사용되는 실제 상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이래서 정답> ‘식별(識別)’은 ‘사물의 성질이나 종류 따위를 구별함’의 의미이며, ‘분별(分別)’은 ‘사물을 종류에 따라 나누어 가름’ 또는 ‘무슨 일을 사리에 맞게 판단함’의 뜻을 지닌다. ⑤의 첫 번째 문장은 남자와 여자를 생물학적으로 구별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남녀간에 분별이 있어야 한다~’가 정확한 용법이다. 또한, 두 번째 문장은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하여 알아본다는 의미이므로 ‘~멀리 있는 사람도 흐릿하게나마 식별이 가능했다.’라고 써야 옳다.

<오답 피하기> ① ‘금방(今方)’은 ‘바로 이제, 지금 막’의 의미이며, ‘방금(方今)’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의 뜻이다.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 읽은 책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방금 전에 읽은 것’은 올바른 어휘의 사용이다.

② ‘구조’는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다’의 의미이며,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다’의 뜻이다.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유사하지만 ‘구조’는 재난(災難)과 같은 현실적 곤란 상황일 때 주로 사용되며, ‘구원’은 종교적이나 사상적인 곤란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③ ‘당황’은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는 뜻이고, ‘황당’은 ‘말이나 행동 따위가 터무니없다’의 뜻이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처해 있으므로 ‘당황’하다가 맞고, 허황된 이야기이므로 터무니없다는 뜻의 ‘황당’이 적절하게 쓰였다.

+++++

+++++

④ ‘변환’은 ‘다르게 하여 바꾸다’의 뜻이고, ‘변천’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바뀌고 변하다.’의 뜻이다. 빛의 자극을 전기 신호로 다르게 바꾸는 것이므로 ‘변환하여’는 적절한 어휘 사용이다. ‘50년간’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성의 생활상 변화를 얘기하고 있으므로 ‘변천’ 역시 적절하다.

[15~19] 현대시

(가) 낡은 집 - 이용악

* 해제 : 이 시는 폐허가 된 낡은 집을 소재로 일제 강점기의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낡은 집에서 살다가 현실적 가난을 못 이겨 이국땅으로 떠나야 했던 털보네 가족의 이야기를 제재로 하고 있는데, 이 작품 속의 화자는 털보네 셋째 아들의 어린 시절 친구로 설정되어 있다. 즉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라는 궁핍한 현실을 배경으로 화자의 눈에 비친 털보네 가족의 비극적인 삶의 이야기이다. 시인은 털보네 가족의 비극적 삶을 통해 일제 강점기를 힘들게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 주제 : 일제 강점하의 유랑민의 비애

(나) 은행 나무 - 곽재구

* 해제 : 화자는 길을 가다 우연히 무척 아름다운 은행나무와 은행잎 깔린 보도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한 세상이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젖게 된다. 특히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나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세상이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워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한 그런 것들은 결국 아름다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주제 : 아름다움이 가져올 희망

15. 작품의 종합적 이해 - 정답 ⑤

<출제 의도·유형 분석> 제시된 작품 각각의 종합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함께 묶인 작품 간의 비교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문제 유형이다. 제시된 작품의 시

적 분위기, 화자, 시상 전개, 태도 등의 측면에서 작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래서 정답> (가)에는 과거 털보네 가족이 유랑민이 되어 떠난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만 (나)에는 과거의 사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는 화자가 은행나무 아래서 현재 느끼는 감회를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배경과 소재 모두 향토적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② (나)는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나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드러나 있다.

③ (가)는 털보네 가족의 유랑을 통해 일제하의 몰락한 농촌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④ (가)는 털보네 가족이 남긴 ‘낡은 집’이라는 대상으로부터, (나)는 ‘은행나무’로부터 시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16. 외적 준거에 따른 적용 - 정답 ④

<출제 의도·유형 분석> 주어진 <보기>의 내용을 이해하고 <보기>에서 요구한 내용을 작품 안에서 찾아보는 문제 유형이다. 먼저 전체의 흐름 속에서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분해 본다.

<이래서 정답> (나)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부정적 현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가 바로 그것이다. 즉 (가)의 ‘찾길’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어감을 주고 있는 부분은 ㉠이다.

<오답 피하기> ①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② 화자가 서 있는 보도에서 바라본 풍경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 구절이다.

③ 은행나무와 은행잎들을 보면서 화자가 느끼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⑤ 은행나무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희망이 불’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 어감을 드러내고 있다.

+++++

17. 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 - 정답 ②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작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작가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창작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검토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래서 정답>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이란 시구는 시적 화자의 친구인 털보의 셋째 아들의 입장을 화자가 바라본 것이다. <보기>에서 시인의 아버지에게 대한 객사 사실이 드러나 있으나 이 구절을 통해 시적 화자의 아버지가 객사한 것이라는 해석은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난’ ‘겨울’이라는 시어는 궁핍한 유랑민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③ <보기>에 제시된 작가의 궁핍한 삶은 일제 치하의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으로 (가)에 나타난 궁핍한 생활상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 제시된 작가의 유이민에 대한 관심은 작품 속에 나타난 털보네 가족의 삶으로 형상화 되었다.

⑤ 작가가 살았던 함경도에서의 공간 체험이 ‘짓두 광주리’, ‘글거리’ 등의 방언으로 작품에 형상화되어 있다.

18.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 정답 ⑤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시의 내용을 회곡으로 각색했을 때 시의 맥락에서 드러나는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 유형이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분위기(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와 어조 등을 살펴서 시의 내용과 다른 것을 찾으면 된다.

<이래서 정답> ㉠에서 털보가 태어난 아기를 보며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처절한 민족의 아픔을 설화 형식을 빌려 표현한 (가)의 내용으로 보아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는 [A]의 마지막 부분 ‘저름등이 타들어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붉은 눈’이라는 표현에도 드러나듯이 가난한 현실 때문에 자식 출생을 기뻐할 수 없는 털보의 처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고생할 아들을 안쓰럽게 바

라보며 내뱉는 말로 시적 상황과 적절하다.

③ (가)에서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를 상황에 맞게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표현은 아들을 낳는 것이 송아지를 낳은 것보다 못하다는 말로 비참한 생활고를 보여 준다.

④ 궁핍한 형편에 입이 하나 더는 것에 대해 아들 출산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이다.

19. 표현상의 특징 파악 - 정답 ③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시의 전체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작품을 시구의 의미와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래서 정답>

화자가 바라보는 은행나무에는 노란 은행잎들이 우산깃 같은 모습으로 무수히 달려 있고 몇 개의 도롱이집들도 달려 있다. 은행나무 잎은 아름다움과 희망을 주지만 세상은 그런 희망과 아름다움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도롱이집’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즉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는 상황에 대한 운명적 수용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삶 속에는 부정적인 현실이 있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노오란 우산깃’, ‘빛나는 눈썹’, ‘아름다운 연서’,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등은 은행나무 잎을 비유한 표현들이다.

② (나)의 화자는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라든가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라는 차분하고도 단호한 표현을 통해 부정적 상황에서도 희망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1행에서 사용되었던 ‘노오란 우산깃’이라는 표현을 끝 부분에 반복 사용함으로써 대상이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즉, 1행에서는 ‘아름다움을 주는 존재’의 의미였지만 끝 부분에서는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의 의미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⑤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추상적 관념인 ‘희망’을 ‘불타는 형상’으로 감각화하여 표현

하고 있다.

[20~23]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최고운전’

* 해제 : 이 작품은 신라 말의 대학자 최치원을 영웅화한 전기체의 소설이다. ‘황금 돼지 이야기’를 비롯하여 많은 설화와 전기적(傳奇的) 요소가 삽입되어 있어 ‘설화를 집성한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가장 큰 의의는 중국(중화)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했다는 점에 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은 후 이민족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작품이 많이 나왔지만, 중국을 배척한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한 ‘임진록’이나, 호족(만주족)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한 ‘임경업전’, ‘박씨전’ 등이 모두 모화 사상의 테두리 안에서 작품이 전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족적 주체성의 측면에서 중국을 적대시한 이 작품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주제 : 최치원의 영웅적 일대기를 통한 민족적 우월감과 자부심의 표출

20. 사건의 중심 소재 파악 - 정답 ①

<출제 의도·유형 분석> 사건의 전개와 관련된 특정한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 유형이다. 작품에 나타난 주요 사건을 정리하고 각 사건의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 따져보도록 한다. 작품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면 쉽게 풀 수 있다.

<이래서 정답> 최치원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물을 활용하여 그의 능력을 보여 주는데, 궤문을 부수게 한 ‘50자 모자’는 예지력을, 악공들과 코끼리를 제압한 ‘구렁이’와 ‘누런 벌’은 신통력을, 학사들을 제압한 ‘시’는 학식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오답 피하기> ③ 악공은 음악을 연주하여 최치원의 마음을 어지럽힐 임무를 띤 사람들로 장애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④ 용상은 임금의 앉는 평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건 전개와 무관한 소재이다.

21. 사건 전개 과정의 이해 - 정답 ①

<출제 의도·유형 분석> 소설의 구체적인 사건 전개 과정으로부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구체적 사물들로부터 공통의 속성을 찾을 수 있는 추상화의 능력이 요구된다.

<이래서 정답> 이 작품은 어려서부터 기적을 보이고 문재(文才)를 떨친 최치원이 중국에 가서 뛰어난 활약을 벌여 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영웅 소설의 성격을 띠고 있다. 최치원이 금돼지의 아들이라 하여 외딴 섬에 버려지기는 하나 그의 신분이 감추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버려진 영웅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가는 과정은 고구려의 신화인 ‘유리왕 설화’에 전형적으로 드러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최치원은 대국인 중국의 부당한 위협에 맞서 소국인 신라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지켜내고 있다.

③, ④ 최치원은 학식과 지혜, 신통력 등 비범한 능력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⑤ 최치원은 장차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중국 황제에 맞서 비범한 능력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고 있다.

22. 서술자의 태도 추리 - 정답 ①

<출제 의도·유형 분석> 작품에 나타난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등장 인물의 대사를 통해 그 말의 의도를 이해하고 주어진 <보기>와의 공통점을 파악해야 한다.

<이래서 정답> ①은 중국을 ‘대국’ 즉 ‘큰 나라’라고 치켜세우면서도, 머리에 쓴 모자가 걸릴 정도로 ‘작음’을 비웃고 있다. <보기>의 시 역시 상대방인 우중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있음을 비웃고 있다. 따라서 두 화자는 모두 상대를 치켜세우는 듯 하면서 우회적으로 조롱하는 ‘억양법’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겉으로는 상대방을 치켜세우는 듯해 보이나 이면에는 조롱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③ ①과 <보기> 모두 상대의 모순된 행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직접 상대의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

로 비웃고 있다.

⑤ 싸움에서 승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보기>에만 해당된다.

23. 소재의 문맥적 의미 파악 - 정답 ③

<출제 의도·유형 분석> 동일한 소재라 할지라도 사건 전개 과정에 따라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황제의 태도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래서 정답> ㉠은 최치원을 시험하기 위한 일종의 함정을 감추기 위한 장막이고, ㉡는 그를 귀인으로 대접하기 위하여 일부러 마련한 특별한 공간으로서의 장막이다.

<오답 피하기> ㉣, ㉤ ㉠은 상대에 대한 위협을, ㉡는 상대에 대한 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4~27] 과학

* 해제 : 인간이 호흡기와 소화기의 교차 구조로 인해 질식사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글이다. 바다 속 척추동물의 호흡계 구조의 진화 과정을 통해 교차된 기도와 식도가 질식사 위험의 원인임을 밝히면서 진화가 반드시 이상적이고 완벽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타협적인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글은 인간의 호흡 기관이 불합리한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바다 속 척추동물의 경우를 통해 그 이유를 추론하여 진화의 방향을 일반화하고 있다.

* 주제 : 진화 과정에서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는 이유

24. 핵심 정보의 파악 - 정답 ⑤

<출제 의도·유형 분석> 글쓴이의 중심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 글이 문제 제기와 해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문제 제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도록 한다.

<이래서 정답> 이 글은 첫째 문단에 필자의 집필 의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둘째, 셋째 문단에서 해명하고 있다. 즉, 첫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 “인간의 호흡 기관이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화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둘째, 셋째 문단에서 바다 속의 척추동물의 진화 과정을 살피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다룬 핵심 문제는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호흡계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진화 과정을 통해 얻은 불합리한 점(이익)은 언급이 되어 있으나 손해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무척추 동물과 척추동물의 호흡계 구조의 차이는 지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이 글의 핵심 화제는 아니다.

③ 인간 호흡계와 소화계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은 지문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없으며 핵심 내용도 아니다.

④ 질식사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구조가 형성된 원인을 진화론적으로 밝히고 있는 글이지, 질식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

25. 정보의 사실적 이해 - 정답 ②

<출제 의도·유형 분석>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그림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지문의 내용과 그림을 꼼꼼히 비교해 보면 쉽게 정답을 찾아 낼 수 있다.

<이래서 정답> 폐어 단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호흡계 구조는 둘째 문단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바다 속 척추동물 호흡계 구조의 진화 과정은 ‘먹이를 거르던 체가 호흡 기능을 갖는 아가미 형태로 변형됨’, ‘호흡계의 일부가 변형되어 허파로 발달(식도 아래에 위치)’, ‘입과 아가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자리 잡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이 ㉡, 두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이 ㉣, 세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이 ㉠이라고 할 수 있다.

26.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 정답 ①

+++++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지문의 해당 구절을 유사한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유형이다. 지문의 내용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와 유사한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찾으려 한다.

<이래서 정답> ㉠은 ‘순간순간의 필요에 대응한 결과가 축적되’ 어 불가피하게 타협적인 구조를 선택하는 방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그 핵심은 ‘불가피한 타협적인 방향’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느 하나의 중심 축을 바탕으로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과정은 ‘상충하는 이익을 고려하여 그때그때 법률을 개정해 나가는’ 상황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 ㉣는 모두 ‘불가피한 타협적인 방향’ 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은 한 용도가 또 다른 용도로 쓰이는 예일 뿐 ‘순간순간의 필요에 대응한 결과’ 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또 ‘불가피한 타협적인 방향’ 이라고 할 수도 없다.

27. 반응의 적절성 평가 - 정답 ㉡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지문의 내용을 읽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 유형이다. 사실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제이며, 지문의 내용과 어긋나는 것을 찾으려 한다.

<이래서 정답> 이 글은 인간의 호흡 기관이 불합리한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의 경우처럼 인간의 호흡계 구조가 이상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상반된다.

<오답 피하기> ㉠ 첫째 문단의 “곤충이나 연체 동물 같은~질식의 위험이 없다.” 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장 “이처럼 진화는 반드시 이상적이고 완벽한 구조를 창출해 내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두 번째 문단 중간 부분의 “그런데 몸집이 커지면서~뻗어 나갔다.” 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셋째, 넷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8~32] 사회

* 지문 분석 : 신문사에서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실제로 유권자에게 영향력이 있으며,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지 않으며, 언론의 공정성 측면에서 올바른 현상도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하여 신문사와 독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밝히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주제 : 언론의 특정 후보 지지의 문제점

28. 내용의 사실적 이해 - 정답 ㉤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 제시된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문의 내용과는 초점이 다른 선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래서 정답> 첫째 단락에서 신문사는 ‘후보의 정치적 신념, 소속 정당, 정책을 분석하여~ 지지해왔다’ 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후보의 정치적 성향을 지지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유권자의 표심 분석에 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 셋째 단락에서 ‘보강 효과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태도와 의견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머무른다’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보강 효과 이론은 개인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셋째 단락에서 ‘선별 효과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미디어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며’ 라고 했으므로, 선별 효과 이론은 개인의 인지 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넷째 단락에서 핵심적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 둘째 단락의 ‘록펠러 후보’ 사례는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므로 올바른 내용이다.

29. 논지 전개 방식 - 정답 ㉠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논지 전개 흐름상 특징적인 서술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이래서 정답> 첫째 단락에서 미국의 신문을 사례로

+++++

+++++

들며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ㄱ) 셋째 단락에서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을 인용하여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영향력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ㄴ).

<오답 피하기> (ㄷ) 셋째 단락에서 인용한 두 이론은 동일한 맥락의 주장으로, 글쓴이는 이 주장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ㄹ) 글쓴이는 기존의 현상과 이론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와 다른 새로운 이론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0. 내용 간의 연관성 파악 - 정답 ①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지문에서 언급된 특정 어휘와 내용들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문제이다.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선지의 내용이 지문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비약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래서 정답> ㉠의 ‘논란거리’는 신문사의 특정 후보지지 전통이 유발하는 논란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 세력의 신문 지배는 ‘논란거리’와 무관하며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넷째 단락에 정치 세력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을 정치 선전에 이용한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이것을 바탕으로 정치 세력이 신문을 지배한다고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오답 피하기> ㉡, ㉢, ㉤ 넷째 단락에서 후보 지지 선언이 후보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선점하려는 현상, 정치 세력의 의한 정치선전 도구화, 언론 권력 강화를 위한 도구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첫째 단락의 ㉠ 앞뒤의 내용을 통해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를 논란거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셋째 단락은 후보지지 선언의 영향력에 대한 설명이다.

31. 구체적 상황への 적용 - 정답 ②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지문에 언급한 이론을 일상 생활의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지문에 나온 이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다.

<이래서 정답> [A]의 두 이론은 모두 미디어의 메시지가 개인이 가진 태도나 의견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기존의 태도를 강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는 언론의 보도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론을 잘못 적용한 사례이다.

<오답 피하기> ㉠ 폭력 영화라는 미디어가 조카의 거친 성격을 강화시켰으므로 적절한 적용이다.
㉢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나의 태도는 그 연예인이 악역을 맡아도 변화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적용이다.
㉣ ‘가’ 후보에 대한 나의 태도는 미디어를 보고 나서 더욱 강화되었으므로 적절한 적용이다.
㉤ 담배를 끊지 않으려는 나의 태도는 미디어의 금연 광고를 보고서도 바뀌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적용이다.

32. 어휘 - 정답 ②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추상적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해당 어휘가 사용되는 언어 환경을 평소에 얼마나 많이 접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 풀이의 관건이다.

<이래서 정답> ‘담보(擔保)하다’는 ‘맡아서 보증하다’의 뜻이다. 지문에서는 보도의 공정성을 ‘보증하다’, 혹은 ‘확고히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33~36] 기술

* 해제 : 판유리 제조 공정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기술 혁신의 의미를 짚어 보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여러 가지 공정을 결합하여 이루어 낸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기술이 발전해 온 사실을 언급한 다음, 판유리 제조 공정의 발전 과정을 구체적인 예로 살펴보고 있다. 판유리 제조 공정에서 ‘탱크가마 기술’과 ‘플로트 공정’의 개발은 단계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 기술 혁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 다음, 글쓴이는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도가 곧바로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면서 기술 혁신의 과정은 험난한 길임을 주지시키고 있다. 결국 여러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만이 미래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임을 결론에서 밝히고 있다.

+++++

※ 주제 : 기술 혁신의 역사와 의의

33. 구체적 사례에 적용 - 정답 ④

<출제 의도·유형 분석>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을 구체적 예로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선택지의 내용들이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래서 정답> 작은 트럭이 하는 일이나 큰 트럭이 하는 일은 규모만 다를 뿐 동일한 하나의 공정이므로, '서로 다른 공정을 하나로 묶는 일'의 예시로는 부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쓰는 일과 담는 일을 새로운 기술(진공 청소기)을 이용하여 한번에 해결한 사례이다.

② 물을 뿌리는 일과 옷을 다리는 일을 새로운 기술(스팀 다리미)을 이용하여 한번에 해결한 사례이다.

③ 버를 베는 일과 탈곡하는 일, 그리고 탈곡한 것을 자루에 담는 일을 새로운 기술(콤바인)을 이용하여 한번에 해결한 사례이다.

⑤ 밀가루를 반죽하고 발효하는 일과 빵을 굽는 일을 새로운 기술(자동 제빵기)을 이용하여 한번에 해결한 사례이다.

34. 내용의 사실적 이해 - 정답 ③

<출제 의도·유형 분석> 글로 표현된 진술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글의 도식화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이므로, 그림을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이래서 정답> 글의 내용에 따르면, '주석 옥탕'은 탕크가마에서 나온 녹은 유리가 '곧바로' 지나가는 곳이고, 롤러에 의해 운반되는 서랭 터널 이전의 부분이다. 그러므로 <보기>의 그림에서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주석 옥탕'은 ㉠ 부분이다.

<오답 피하기> ㉡는 탕크가마, ㉢는 녹은 유리가 나오는 출구, ㉣는 서랭 터널, ㉤는 롤러이다.

35.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리하기 - 정답 ⑤

<출제 의도·유형 분석> 글의 핵심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기술 혁신의 한 가지 방법인 '분리된 제조 공정의 결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주의력이 요구된다.

<이래서 정답> '플로트 공정'은 '새로운 유리 제조 공정'이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 있던 '기존의 공정'을 연속적인 하나의 공정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A]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도가 쉽지 않은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사례이므로, 그 필요성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플로트 공정을 개발했을 거라는 추측도 자연스럽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④ 모두 [A]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문맥에 맞는 한자성어의 이해 - 정답 ①

<출제 의도·유형 분석> 글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한자성어를 찾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평소 자주 쓰이는 한자성어들을 틈틈이 익혀 놓아야 한다.

<이래서 정답> '온고지신'은 '옛것을 연구하여 거기서 새로운 지식이나 도리를 찾아내는 일'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기술 혁신의 역사를 성찰하는 이유로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기술 혁신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음'을 들고 있으므로 '온고지신'의 의미와 잘 어울린다.

<오답 피하기> ②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의미이다.

③ '연목구어'는 되지도 않을 일을 굳이 하려한다는 의미이다.

④ '일거양득'은 한 가지의 일로써 두 가지의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⑤ '동상이몽'은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한다는 의미이다.

[37~43] 문학 복합 - 수필, 고전시가

(가) 조지훈, '멋 설(說)'

* 해제 : (가) 조지훈의 수필로 인생의 올바른 자세를 '멋'이라는 한 단어에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

필자가 생각하는 ‘멋’스런 삶이란 현실의 조건에 연연해하지 않고 유유자적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그러한 삶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자신이 따라야 할 덕목으로 삼고 있다.

* 주제 : 멋의 의미를 통해 본 삶의 행복 고찰

(나) 고전시가 - 이황, ‘도산십이곡’

* 해제 : 이황(李滉)이 지은 12수의 연시조로, 자연을 빌어 유교적 질서와 이상을 읊은 노래이다. 글쓴이는 이 작품을 전 6 곡(前六曲)·후 6 곡(後六曲)으로 나누고, 전 6 곡을 ‘언지(言志)’, 후 6 곡을 ‘언학(言學)’이라 불렀다. 언지는 천석고황의 강호은거(江湖隱居)를, 언학은 학문과 수양을 통한 성정(性情)의 순정(醇正)을 읊었다.

* 주제 : 자연 관조와 학문 수양의 정진

37.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 정답 ④

<출제 의도·유형 분석> 서로 다른 두 장르의 내용적 특징을 비교하여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삶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래서 정답> (가)는 주변 현실 상황에 개의치 않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는 자연을 벗삼고 학문수양에 정진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즉, 두 글 모두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두 작품 모두 글쓴이의 체험이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두 작품 모두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두 작품 모두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상황을 그리워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성찰하며 가다듬고 있다.

⑤ (가)에서 현상에 얽매이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비판적 어조가 뚜렷이 나타나 있진 않다.

38. 다른 상황으로 적용 - 정답 ①

<출제 의도·유형 분석> 제시된 두 작품에서 글쓴이의 태도를 파악한 다음, 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작품에 나타난 글

쓴이의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정답> (가)의 글에 발문을 쓴다고 가정했으므로 (가) 작품과 일치하는 설명이어야 한다. (가) 글은 세상의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①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② 인간의 이욕(利慾)에 매여 사는 것은 (가) 글과 무관하다.

③ (나)의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곤궁(困窮)하다고 보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현재 처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④ (가) 글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좇기보다는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여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

⑤ 지조(志操)를 지키는 모습은 (가) 글의 내용에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9. 표현상 특징과 효과 이해 - 정답 ④

<출제 의도·유형 분석> 수필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과 그것이 유발하는 작품상의 효과를 판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표현상의 특징과 그것이 나타내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래서 정답> 옛 사람의 작품 인용도 나타나 있지 않고, 또한 글쓴이 자신의 괴로움이 강조되어 나타나 있지도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살아있는 복이 죽하지 않은가’,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등에서 영탄적 어조를 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어조는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② ‘다시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고 있다.

③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등에서 대구가 나타나며, 이는 멋의 속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⑤ 전체적으로 고풍스런 느낌의 한자어의 사용이 많으며, ‘-아닌가’, ‘삼노라’ 등에서 옛스런 말투가 느껴진다.

40. 미루어 알기 - 정답 ①

<출제 의도·유형 분석> 글의 흐름을 통해 빈칸에

+++++

+++++

들어갈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문제이다. 주변 문맥을 통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해야 하므로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래서 정답> ‘㉠이 곧 행복이라’ 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화자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삶의 자세가 들어야 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이 글에서 화자가 언급하지 않은 삶의 태도이다.

<오답 피하기> 화자는 현실의 여건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겠다고 했으므로 ③, ⑤는 옳은 설명이다. 또한 책(書)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했으므로 ②도 적절하다. ④는 이 글 전체가 올바른 삶의 자세를 깨우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들어가기에 적절한 말이다.

41. 감상의 적절성 평가 - 정답 ②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시조의 표현과 내용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감상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특히 주어진 시조가 연시조임을 고려하여, 각 수(首)의 유기적 관계를 눈여겨 봐야 한다.

<이래서 정답> ‘자연 속에서 허물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A]의 화자를 두고, 세상의 슬기로운 사람을 뜻하는 [B]의 ‘허다 영재’가 현학적(衡學的)이라고 비판한다는 것은 내용상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아름다운 자연을 벗하여 살며 태평성대 속에 병으로 늙어가는 작자의 모습이 한 폭의 동양화 속에 신선과 같은 모습으로 연상된다.

<오답 피하기> ① [A]는 풍류 대상으로서의 자연물, [D]는 학문 정진에의 의지를 일깨운다.

42. 시적 화자의 정서 파악과 적용 - 정답 ⑤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작품 속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여 다른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시조의 내용과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추리해야 한다.

<이래서 정답> [A]는 자연에 동화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⑤를 해석하면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으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에 술이 담겨 있겠느냐. 가난한 인생이 이 세상에 나뿐이라. 배고픔과 추위가 몸을 괴롭힌들 일편단심

(忠)을 잊을 것인가’로, 아무리 가난해도 나라에 대한 충심은 잊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으므로 [A]의 정서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④ 모두 자연에 동화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자연에 대한 사랑과 안빈낙도
- ②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운 삶
- ③ 자연에 묻혀 분수에 맞게 살아감.
- ④ 자연에 묻혀 풍류 생활을 즐김.

43. 문맥적 의미 파악 - 정답 ③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어구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고 유사한 것을 찾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문맥의 앞뒤 내용을 근거로 문맥적 의미를 추리해야 한다.

<이래서 정답> ‘대중이 없는데’는 ‘대강으로 헤아려 짐작하거나 어렵으로 셈하는 것’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③의 ‘좌지우지(左之右之)’는 ‘제 마음대로 다루거나 휘두름. 쥐락펴락함.’의 의미를 가지므로 ㉠와는 이질적이다.

<오답 피하기> ‘이리저리,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랬다저랬다’는 대강으로 하는 짐작의 의미를 지닌다.

[44~47] 언어

* 해제 : 문자 발달사의 과정(그림 문자 → 표의 문자 → 표음 문자 : 음절 문자 · 음운 문자)에 따른 한글의 문자(文字)적 장점을 알기 쉽게 설명한 정보 전달의 글이다.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로 문자 생활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음운 문자이고, 자형끼리의 유사성에 의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아쓰기를 함으로써 실제 말소리의 단위인 음절을 반영하고 있는 음절 문자의 장점도 취하고 있다.

* 주제 : 한글의 문자(文字)적 특성

44. 세부 정보의 확인 - 정답 ②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지문 속에 산재해 있는 정

+++++

+++++

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 유형이다.

<이래서 정답> ② 음절 문자가 음운 문자보다 글자 수가 적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셋째 문단에서 각 문자 부류의 장점을 언급하는 내용에서 ‘음운 문자는 적은 수의 글자로 문자 생활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 이라고 진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음운 문자가 음절 문자보다 글자 수가 적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은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마지막 단계인 표음문자 중 음운 문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은 셋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과 넷째 문단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④는 넷째 문단(한자는 표의 문자이지만, ‘印度, 伊太利[나라 이름]’ 처럼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에는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하므로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는 셋째 문단의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다.

45.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 ③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지문 속의 특정 정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표로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이 문제의 경우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서로 대비되는 특성을 지문에서 찾아서 정리하면 된다.

<이래서 정답> (ㄱ)에는 한글의 자형에 반영된 특성이 들어가야 한다. 둘째 문단의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음운 문자와는 별도로 ‘자질 문자’를 설정하고 한글을 여기에 귀속시키기도 한다. 즉, 발음 위치가 같은 쌍인 ‘ㄱ, ㅋ’과 ‘ㄷ, ㅌ’에서 추가된 획은 ‘거셉’이라는 자질을 나타내므로 한글을 자질 문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는 진술로 보아 ‘자질 문자’가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ㄴ)에는 한자의 문자 운용에 이용된 특성이 들어가야 한다. 넷째 문단의 ‘한자는 표의 문자이지만, ‘印度, 伊太利[나라 이름]’ 처럼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에는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하므로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

다.’는 진술로 보아 ‘음절 문자’가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ㄷ)에는 한글의 문자 운용에 이용된 특성이 들어가야 한다. 넷째 문단의 ‘한글은 음운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음과 모음을 한 글자로 모아씀으로써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진술을 통해 ‘음절 문자’가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46. 내용의 심화 · 확대 - 정답 ④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지문의 특정 내용을 좀더 심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생소한 유형이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기>의 각 단계별 내용이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래서 정답> ‘자질 문자’의 특성에 관한 내용 중, 이 글에서 한자의 자형에 반영된 특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다른 문자 중에서 자형이 자질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를 파악하려면 한글의 경우에 유추 적용하여 사례를 검토하면 된다. ‘ㄱ→ㅋ’은 가획이 ‘거셉’과 같은 음운 자질의 차이를 반영하는 반면에, ‘木→林’(나무→숲으로 의미 강화, ‘日→目’(해에서 눈으로의 의미 변화)은 자질 문자의 특성이 아닌 표의 문자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등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⑤ 모두 둘째 문단의 내용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47.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 정답 ③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지문의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무엇보다 문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문에서 이해한 정보를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정답>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하는 자질 문자의 특성을 적용하여 찾는다. ‘[도토리]’라는 발음은 ‘ㄷ’과 ‘ㅌ’처럼 서로 닮은 글자에 가획이 ‘거셉’과 같은 음운 자질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제1문자와 제2문자는 서로 형태가 비슷하되, 제1문자에 가획이 있는 ③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③이 ‘도토리’라면 ④는 ‘도티

+++++

+++++

(투)리’ 정도가 될 것이다.

[48~51] 예술

* 해제 : 판소리에서의 ‘이면을 그린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면을 그린다’의 의미를 ‘사실 내용 그대로를 음악으로 표현해야만 이면을 그렸다’고 받아들이는 측과 ‘사실 내용에 대한 해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창자의 주체적 해석을 허용한다’고 받아들이는 측의 서로 대비되는 관점을 소개하면서 그것들이 가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든 이면은 창자가 소실로 표현해 내고자 하는 바탕으로 모든 판소리 창자들이 잘 그렸다고 듣고 싶어하는 찬사라고 말하고 있다.

* 주제 : 판소리에서의 ‘이면을 그린다’의 의미

48. 서술상의 특징 파악 - 정답 ⑤

<출제 의도·유형 분석> 글에 사용된 논지 전개 방식과 표현상의 특징 및 효과를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선택지를 하나하나를 제시문에 대응시키는 오답 지우기 방식을 활용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래서 정답> ‘통시적’이란 말은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또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는’ 입장이다. 즉 ⑤가 위 글에 대한 서술상의 특징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면을 그린다’에 대한 의미 변화의 과정이 나타나야 하는데 제시문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절한 진술이 되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둘째 문단과 넷째 문단의 각각 첫 문장이 해당한다.

② 첫째 문단의 「춘향전」 중 ‘옥중가’가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예시에 해당한다. ③, ④ 셋째, 넷째, 다섯째 문단에서 사실 내용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측(부정적 측면 : 음악적 표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과 이와는 상반되게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부정적 측면 : 미숙한 소리를 합리화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음)의 입장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49. 핵심 정보의 추리 - 정답 ②

<출제 의도·유형 분석> 표면적으로는 생략된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지만 결국 이 글의 핵심 논지인 ‘이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이래서 정답> ‘이면’은 첫째 문단에 의하면 청중을 공감하게 만드는 분위기이고, 둘째 문단에 의하면 음악 행위에 의해 구현된 그 무엇으로 사실 내용을 뜻한다. 즉 ‘이면’은 분위기와 내용의 본질적 의미까지 포함한 것으로, 결국 ‘창자가 소리로 표현해 내고자 하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은 창자가 즐겨 부르는 ‘애창곡’의 의미이고, ③, ④는 독창적 창법을 의미하는 ‘더늌’에 가까운 개념이다. ⑤는 청중(관객)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내용이다.

50. 미루어 알기 - 정답 ②

<출제 의도·유형 분석> 지문 속 특정 진술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르게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이래서 정답> 어느 문단에도 독창적 창법을 개발하려는 창자가 드물다는 진술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 모든 창자들이 ‘이면을 잘 그렸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독창적 창법을 개발하려는 창자가 적어 ‘이 말(이면을 잘 그렸다.)을 듣기가 쉽지 않다’고 진술했다는 것은 문맥상으로도 부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이면을 잘 그렸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창자가 사실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④)으로 음악적 표현을 사실 내용에 들어맞게 하고(⑤), 분위기까지 음악적으로 표현한 다음(③)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①).

51. 문맥적 의미의 이해 - 정답 ④

<출제 의도·유형 분석> 지문 속에 여러 번 등장하는 동일 어휘이지만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는 양상을 바르게 파악하는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이래서 정답> ④의 ‘소리’는 바로 앞에 나오는 <‘이면 찾다가 소리 못한다.’라는 말>을 지칭한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⑤ ‘소리’는 모두 ‘판

+++++

+++++

소리'의 의미이다.

[52~55] 인문

* 해제 : '느낌'이라는 현상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다. 어떤 현상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동일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론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방법론으로 유추적 방법과 과학적 방법을 검토한 뒤 새로운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주제 : '느낌'의 동질성 판단 방법

52. 단락의 기능 파악 - 정답 ④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각 단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판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단락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방식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즉 글의 내용과 전개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래서 정답> (라)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방법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만을 살펴보았을 뿐 아직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④의 제기된 의문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손가락이 베여 아픈 경우라는 일상 경험으로부터 나와 다른 사람이 느끼는 아픔의 동질성 여부라는 화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② 논의의 초점이 되지 않는 상황(거짓으로 아픈 척하는 경우 등)을 배제한다고 밝힘으로써 거론하고자 하는 문제 의식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③ 고전적인 해결책인 유추의 방법 소개와 그것의 문제점 지적이 (다) 단락의 요지이다.

⑤ (마)는 기존 해결 방법의 한계에 근거하여 새로운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전망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53.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 정답 ⑤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지문의 논점을 근거로 다른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지문의

논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문제 풀이의 선결 과제이다.

<이래서 정답> 느낌의 동질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필자의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내 느낌과 다른 사람의 느낌이 동질할 것이라고 추리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같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설령 과학이 발전하여 느낌에 대한 뉴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느낌이 나와 같은지 직접 관찰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보기>에서 B는 A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A의 슬픔을 추론할 수는 있지만 A의 느낌이 B 자신과 완전히 같음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 ⑤처럼 B는 A의 울음, 즉 행동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그의 슬픔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직접 관찰한다는 것은 A의 슬픔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아는 것인데 필자는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오답 피하기> ① B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남의 감정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없을 뿐이다.

② B가 A의 감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즉 직접 관찰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A 역시 B의 감정을 직접 관찰하지 못할 것이라고 B는 생각할 것이다..

③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본문의 논점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말과 행동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며 동일한 측면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④ A의 말과 행동을 보고 A가 슬플 것이라고 추리했으므로 B는 A가 슬플 때 하는 행동을 자신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믿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슬픈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54.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 정답 ①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본문에 주어진 설명에 기초하여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본문의 주어진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그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야 한다.

<이래서 정답> ①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유사한 다른 상황을 추리하는 유추 해석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동일한 모양의 한 상자에서 책이 들었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동일한 모양의 상자라 할지라도

+++++

+++++

다른 상자에도 책이 들었다고 추리하는 ①은 무리한 유추해석의 한계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오답 피하기> ② 우리 집 소가 수소와 암소를 낳을 가능성인 50%가 항상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도박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③ 부분(신랑, 신부)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것이 모인 전체(가정)가 훌륭하다고 보는 것은 결함의 오류이다.

④ 그 사람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를 문제삼아서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발생학적 오류이다.

⑤ 피고가 무죄임을 증명할 때까지는 유죄라고 하여 유죄가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원천봉쇄의 오류이다.

55. 다의어의 의미 구별 - 정답 ④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다의어의 의미 구별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다의어가 쓰인 문맥을 명확히 살펴야 한다.

<이래서 정답> ㉠은 ‘가정하다’의 의미이다. ‘내가 잘못했다고 가정하고’의 문맥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⑤는 ‘값을 매기다’, ‘셈하다’의 의미이다.

[56~60] 현대 소설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해제 : 이 작품은 남녀간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친자 확인(親子確認)이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본 줄기를 이룬다. 이 이야기가 길과 속을 이루면서 미묘한 운명을 드러내는 과정에 ‘길’이 등장한다. 그 ‘길’은 낭만적 정취를 듬뿍 머금은 달밤의 산길이다. 물론, 그 길은 허 생원 일행에게는 생업(生業)의 길목이지만, 괴로운 인생사의 현장이기보다는 삶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세계이다. 온갖 각다귀, 잡배가 우글거리는 장터의 산문적(散文的)인 현실과는 격리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는’ 서정적인 세계이다. 여기에 사랑의 추억과 인연(因緣)의 끈질김이 어우러지면서 한 늙은 장돌뱅이의 애환이 드러난다.

* 주제 : 떠돌이의 삶을 통해 본 인간 본연의 애정

56. 작품의 종합적 이해 - 정답 ②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작품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래서 정답> (나)에서 허 생원의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는 구절을 통해 뒤에 나올 성 서방네 처녀와의 ‘인연’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인물의 심리까지 근접해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거리를 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

③ 허 생원의 인생 이야기에 대해 다른 인물이 반발을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인물 간의 갈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물방앗간’은 과거 상황일 뿐 현재 상황은 아니다.

⑤ 현실 극복의 굳은 의지는 작품의 내용과는 무관하다.

57. 감상의 적절성 평가 - 정답 ②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작품에 나타난 주요 배경이 인물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묻는 문제이다. 작품의 상황과 인물의 심리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정답> 봉평은 허 생원의 유일무이한 사랑이 이루어졌던 마음의 구심점이 되는 장소이다(ㄱ). 허 생원은 현재 불우한 떠돌이이지만 봉평에서의 추억으로 삶의 힘을 얻는다(ㄴ).

<오답 피하기> (ㄷ) : 허 생원이 봉평에서 겪었던 일이 무서운 일은 아니다. 또한 허 생원의 추억 이야기가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닌 현실 속에서 실제 존재했던 추억이다.

(ㄹ) : 봉평은 정다운 추억의 장소이지, 잘못을 반성하는 장소와는 무관하다.

58. 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 정답 ③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소설 내용을 바탕으로 초창장을 만들어 보는 응용 문제이다. 소설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래서 정답> [A]는 허 생원이 과거를 회상하는 계기가 되는 배경으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

+++++

조성한다. ③이 [A]의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였고, ‘서정과 낭만으로 빛은 집’이라는 비유를 적절히 활용하여 문안을 작성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A]의 분위기를 살리지 못한 표현이다.

② 달밤의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풍경을 살리지 못했고, 비유도 활용하지 못했다.

④ 서도(西道)는 평안도와 황해도를 의미하는데, 소설의 배경인 ‘봉평’과는 무관하다.

⑤ 비유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고, 다시 못 갈 곳이라는 내용도 어울리지 않는다.

사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이래서 정답> ㉔만 ‘아끼다’가 활용해서 생긴 ‘어미’이고, 나머지는 ‘강조’의 의미를 지닌 ‘조사’이다.

59. 소재의 의미와 기능 파악 - 정답 ③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소설의 핵심 소재인 ‘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문제이다. 인물의 처지와 중심 소재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래서 정답> 이 작품에서 ‘밤길’은 일정한 목적지로 가기 위한 통로라기보다는 유랑의 한과 떠돌이 삶의 애절함, 그리고 숙명적인 역마살의 비애 등이 복합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제재이다. 또한 만남과 헤어짐의 인연, 그리고 그리움의 정서까지도 상징하고 있다. 즉 여기서의 ‘길’은 허 생원 일행에게 도피처가 아니라 삶이 전개되는 현장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밤길’을 인물의 암담한 처지와 관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장돌뱅이에게 ‘길’은 삶의 여정을 의미한다.

② 자신의 일생과 함께 했던 나귀의 등을 어루만지며 위안을 얻고 있는 허 생원의 행동에서 알 수 있다.

④ 일렬로 늘어서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오는 동이는 맨 앞의 허 생원의 목소리를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을 것이다.

⑤ ㉔의 ‘길’은 과거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공간이며,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할 미래가 담긴 길인 것이다.

60. 어법의 이해 - 정답 ⑤

<출제 의도 · 유형 분석> 조사와 활용 어미를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부사나 용언 뒤에도 조

+++++